

한반도 주변국에서는 북한 작가 반디의 『고발』을 어떻게 바라보는가? – 일본과 대만 번역서 결텍스트 고찰*

성 승 은 · 김 보 경 · 최 소 영**
(한국외대)

1. 서론

『고발』은 실제로 북한에 거주하는 것으로 알려진 작가가 저술했다는 점에서 화제가 되어 현재까지 28개국 이상에서 출판되었다. 번역학 연구의 관점에서 봤을 때 『고발』은 다수의 언어 문화권으로 번역됨에 따라 다양한 번역 양상을 볼 수 있다는 것이 특징이다. 『고발』의 번역서들 중 일부 유럽 및 아메리카 지역의 번역서를 고찰한 성 외(Sung et al. 2022)에서는 한국어 원문에서 직접 번역된 프랑스어 및 영어 번역서와 이들을 기반으로 번역된 몇 개 중역본을 살펴본 결과, 번역 과정에서 생성되는 관점이 서로 영향을 미치면서 새로운 관점과 논의를 불러일으켰고 이러한 담론이 『고발』의 한국어 재출간본으로 이어지는 일종의 순환 양상을 보였다.

『고발』은 여러 언어로 번역된 것 이외에도, 북한이라는 특수한 정치 체제에서 벌어지는 사건들이 북한과 반대 체제의 남한에 소개되면서 이데올로기 관점

* 본 연구는 2022학년도 한국외국어대학교 교내연구비 지원에 의해 이루어졌음.

** 교신저자

이 다수의 결텍스트에 반영되어 있다는 것이 또 하나의 큰 특징이다. 『고발』에는 7편의 단편소설을 둘러싸고 앞뒤로 추천사, 해설, 비화, 3편의 독후기, 북한말 소사전이 수록되어 있어, 외화(外話, 주변텍스트)와 내화(內話, 소설)의 형식인 액자 소설에 비유될 수도 있다(이지은 2018: 498). 이들 결텍스트는 독자에게 저자 반디의 원고가 반출된 과정을 소개하고 전체적으로 반복 이데올로기의 맥락을 제공한다. 따라서 『고발』의 다양한 번역서에서 한국어 원문의 결텍스트 반영 양상을 고찰하는 것은 곧 원문의 이데올로기 수용 양상을 관찰할 수 있는 개연성으로 이어진다. 성 외(Sung et al. 2022)에 따르면 『고발』의 일부 서구권 번역서의 결텍스트에서는 반공 이데올로기의 완화, 남한과 북한에 대한 중립적 관점, 저자 반디 및 작품의 진위에 대한 논란이 발견되었다. 한국어 원문에서 드러나는 이데올로기적 관점과는 다른 양상이 나타난 것이다. 본 연구는 이 지점에서 출발한다. 성 외(2022)에서 한국어 원서와 다른 관점을 보인 나라를 주로 북한과는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크지 않은 나라들로 관찰자로서의 입장을 견지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렇다면 북한과 인접한 중국, 러시아, 일본, 대만의 경우는 번역서에 어떠한 이데올로기적 관점이 반영되어 있을까?

중국과 러시아에서는 『고발』이 번역되지 않았고, 일본과 대만에서는 2016년과 2017년에 각각 번역되어 출판되었다. 선행연구에 따르면(Lefevere 1992; Sapiro 2016; Spirk 2014; Thomson-Wohlgemuth 2009) 어떤 책을 번역하고 번역하지 않을지 결정하는 단계에서부터 이데올로기가 개입되는데, 북한과 체제를 함께 하는 중국과 러시아에서는 번역되지 않고 자유진영인 일본과 대만에서는 번역되었다는 사실은 매우 흥미롭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일본어판과 대만판¹⁾을 중심으로 이데올로기가 번역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어떻게 반영되는지를 심도 있게 고찰하고자 한다.

본고에서 결텍스트를 주요 분석 대상으로 삼은 이유는 결텍스트가 텍스트와 맥락이 만나는 인터페이스(Harvey 2003: 68)이며 이에 따라 번역서에서의 원문 이데올로기 반영 양상을 고찰하기에 적절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결텍스트는 책에서 다양한 기능을 수행하는데 독자가 작품을 특정 방향으로 이해하

1) 이곳에서 ‘대만판’이라 함은 대만에서 출판된 『고발』의 번역서를 말한다. 대만에서 통용되는 표준어도 ‘중국어’이므로 중국어(중문)본, 중국어(중문)판 등의 표현을 사용할 수 있으나 중국 대륙과의 혼동을 방지하기 위해 ‘대만판’이라는 표현을 사용한다.

고 해석하도록 하는 기능, 작품을 홍보하는 상업적 기능, 목차나 페이지와 같이 독자가 책을 편하게 읽도록 안내하는 기능으로 볼 수 있다(Birke and Christ 2013: 67-68). 본고는 이 중 독자의 작품 해석에 잠재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능에 초점을 두고자 한다. 스피르크(Spirk 2014: 148)는 이를 이데올로기를 반영하는 기능으로 보고 있다.

본고는 따라서 『고발』의 일본어판과 대만판 결텍스트를 ST와 비교·고찰함으로써 함의를 도출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는 작품과 물리적으로 같은 공간에 있는 주변텍스트(peritexts, 겹표지, 추천사, 해설, 독후기 등)와 신문 기사, 서평 등 같은 책이 아닌 다른 공간에 있는 후텍스트(epitexts)를 살펴보고자 한다. 특히 성 외(Sung et al. 2022)에서 고찰한 서구권 언어의 번역서들과 비교하여 한반도 주변국의 번역서에서는 이 책을 바라보는 관점에 차이가 있는지, 있다면 어떤 차이인지 파악하고자 한다.

일본과 대만은 한자문화권으로서 언어적으로 한국어와의 공통분모를 가진다. 또한 서구권 언어로의 번역이 영어나 프랑스어를 통해 중역이 이루어진 경우가 많은 것과 달리 일본어판과 대만판은 한국어에서 직접 번역되었으므로 매개본의 영향 아래 있지 않다. 따라서 일본어판과 대만판의 결텍스트에서 드러나는 관점은 옳이 이들 번역서의 관점이 될 것이다.

결텍스트에 대한 기존 연구에서도 ST의 저자나 문화의 이미지가 TT에서 다르게 나타난 연구들이 있지만, 여러 언어로 된 번역본을 통해 다양한 결텍스트 변화를 살펴본 연구는 드물다. 따라서 본고는 성 외(Sung et al. 2022)의 후속 연구로 지정학적 요인으로 인해 북한에 대해 당사자로서의 입장이라고 할 수 있는 일본어판과 대만판에서 보는 『고발』을 관찰자의 입장에 있는 서구권의 관점과 비교하는 연구다. 본 연구는 수용 문화의 맥락에서 이데올로기에 따라 번역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다각적인 측면에서 살펴보고 구체적인 사례를 제시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아래 2장에서는 정치 이데올로기가 국경을 넘어 번역되고 결텍스트에 반영되는 양상에 대한 선행연구를 살피고, 3장에서는 일본어판과 대만판에서 『고발』의 결텍스트가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를 분석한다. 4장에서는 논의를 종합하고 함의를 도출한다.

2. 이론적 배경과 선행연구

2.1 문학작품의 국경 넘기와 정치 이데올로기

작품이 국경을 넘어 해외에서 번역되는 데는 여러 요인이 작용할 것이다. 사피로(Sapiro 2016)는 이를 정치, 경제, 문화, 사회적 요소로 설명하는데 이들은 대체로 함께 작용하지만 때로는 특정 요소가 우위를 점하기도 한다. 정치를 비롯하여 인간의 사상이나 생활 방식을 제약하고 역사적·사회적 입장을 반영하는 신념 체계를 지칭하는 이데올로기²⁾는 작품의 해외 유통을 촉진하거나 금지하는 대표적 요인으로 언급된다. 마르크스나 엥겔스의 책은 정치 조직과 당의 노력으로 세계적으로 유통될 수 있었다. 파시스트나 공산주의 국가에서는 법적인 제약을 통해 특정 내용의 출판이 금지되기도 한다. 국내 출판을 어렵다고 판단되면 해외에서 먼저 출판되기도 하는데 『닥터 지바고』가 그러한 경우로, 이 책은 소련에서 출판이 허락되지 않아 이탈리아에서 먼저 출판되어 국제적으로 알려졌다(83-84). 르페브르(Lefevre 1992: 16)는 번역을 통한 문학작품의 수용을 논하며 문학 시스템을 내부와 외부로 구분하는데, 외부 시스템을 구성하는 요인으로 이데올로기, 경제, 지위적 요소 중 이데올로기를 가장 중요한 것으로 보고 있다(Munday 2016: 200-202). 정치적 검열에 의해 번역이 되지 않은 경우를 심도 있게 고찰한 연구로는 스피크(Spik 2016)의 연구가 있다. 체코 문학이 포르투갈에서 20세기에 어떻게 수용되었는지를 고찰한 이 연구에서는 검열로 인해서 번역이 이루어지지 않은 체코어 작품 및 체코슬로바키아에 관한 작품이 60%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스피크는 번역이 된 작품뿐 아니라 번역되지 않은 작품 역시 두 문화 간의 관계를 조명하는 중요한 연구 대상임을 역설한다. 이같이 기존 연구에서는 작품이 국경을 넘는 데에 이데올로기가 핵심적인 요인임을 보여주고 있다.

2) 르페브르(Lefevre 1992: 16)는 제임슨(Jameson 1974)을 인용하여 “인간의 행동에 질서를 부여하는 형식, 관습, 신념의 틀”이라고 정의했다.

2.2 결텍스트와 이데올로기

본고에서 결텍스트는 바첼러(Batchelor 2020: 402)의 정의를 따라 “텍스트 수용 측면에 잠재적인 영향력을 지닌 의식적으로 고안된 문턱(threshold)”으로 본다. 결텍스트는 작품과 물리적으로 같은 공간에 있는 주변텍스트와 작품과 다른 공간에 있는 후텍스트로 구분할 수 있다(Genette 1987/1997). 바첼러(Batchelor 2020)는 결텍스트 연구를 크게 세 갈래로 구분하고 있다. 첫 번째는 번역가의 가시성에 대한 연구이고, 두 번째는 사회문화 및 이데올로기 맥락에서의 연구로 검열, 젠더 등의 연구를 포함한다. 세 번째는 ST의 저자나 이미지 반영과 관련된 논의이다. 본고는 반공 이데올로기가 번역서에서 나타나는 모습을 살펴본다는 점에서 두 번째의 사회문화 및 이데올로기 맥락의 연구이며 동시에 번역서에서 원문 문화를 바라보는 관점을 살핀다는 점에서 세 번째의 갈래에도 해당된다.

이데올로기의 결텍스트 반영에 관한 연구는 기존에도 많이 이루어졌다(Kung 2009; Lefevere 1992; Li, Li and Mao 2019; Spirk 2014; Watt 2005). 이 중에 리, 리와 마오(Li, Li and Mao 2019)의 연구에서는 장옹(Jung Chang)의 *Wild Swans*의 영어 원문과 번역서의 앞표지 이미지를 비교하였는데 프랑스어 번역서에는 원문의 정치 이데올로기가 그대로 나타났지만 대만판에서는 사라졌다. 저자들은 이에 대해 대만판에서 의식적으로 정치 이데올로기를 드러내지 않은 것으로 보았다. 체코 문학이 포르투갈에 수용된 과정을 고찰한 스피크(Spirk 2014)의 연구에서는 검열에 따라 번역이 이루어지지 않은 작품들을 논하고 있는데, 번역이 이루어진 작품 중 『병사 슈페이크의 모험』의 포르투갈어 번역서에서 검열로 삭제된 부분과 삭제되지 않은 부분을 소개하고 있다. 스피크는 이 작품의 번역서에서 관련 사회문화적 맥락이 충분히 소개되지 않았으며 검열을 피하기 위한 노력이 두드러진다고 정리하였다(110). 그 외에도 결텍스트를 통해 드러나는 ST의 이미지를 살펴본 연구(Torres-Simón 2021), ST 저자의 이미지 수용에 관한 연구(Summers 2017) 등도 특정 관점을 견지한다는 점에서 이데올로기 연구로 분류될 수 있다. 요컨대 이데올로기는 작품이 국경을 넘어 출판될지를 평가하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으며, 출판되는 경우에도 결텍스트를 통해 해당 이데올로기의 수용 양상이 나타난다.

2.3 『고발』의 서구권 번역서들에서 드러나는 이데올로기

『고발』의 번역서 중 일부 유럽 및 아메리카 지역의 번역서를 논한 성 외(2022)의 연구에서는 프랑스어, 유럽 포르투갈어, 스웨덴어, 그리스어, 영어, 브라질 포르투갈어 번역서를 살펴보았다. 이 중 영어와 프랑스어 번역서는 한국어 원문에서 직접 번역되었으며, 유럽 포르투갈어, 그리스어, 스웨덴어 번역서는 프랑스어에서, 브라질 포르투갈어는 영어본을 매개로 중역이 이루어졌다. 이 연구에서는 각 번역서의 결텍스트 양상 고찰을 통해서 번역에 참여하는 다양한 행위자의 목소리가 드러남을 보여준다. 번역 과정에서 생성되는 관점과 담론이 어떻게 서로 교류하며 발전되는지, 이러한 담론이 어떻게 다시 한국어 원문의 재출간본으로 이어지는지를 보여줌으로써 번역이 일종의 순환성을 가짐을 역설한다. 이 과정에서 각 번역서에서 나타나는 북한에 대한 관점을 논하는데, 일부 번역서에서는 반공 이데올로기의 완화, 남한과 북한에 대한 중립적 관점, 저자 반디 및 작품의 진위에 대한 논란이 발견되었다.

우선 반공 이데올로기 완화라는 것은 예컨대 ‘통일’, ‘공산주의 종말’과 같은 정치색이 짙은 표현이 일부 서구권 번역서에서는 완화되거나 삭제된 것을 말한다. 두 번째로 남한과 북한에 대해 중립적인 입장을 견지하려는 관점은 ‘6.25 전쟁’³⁾을 해당 외국어로 번역할 때 남한과 북한에서 어떻게 서로 다르게 불리는지를 설명한 경우, ‘자유와 희망의 땅 대한민국’에서 대한민국을 수식하는 표현을 삭제한 경우 등이다. 마지막으로 저자 반디의 진위에 대해 일부 언어의 신문 기사나 서평 등에서 논란이 제기되었으며, 이러한 논란이 다른 번역서에 영향을 미쳐 ‘편집자 노트’에서 이에 관해 언급하기도 하였다.

이제 위와 같이 일부 서구권 번역서에서 발견된 현상이 일본어판과 대만판에서는 어떠한지 살펴보기로 한다. 성 외(2022)에서는 번역서들의 결텍스트를 통해 드러나는 담론이 서로 영향을 미치며 교류하는 양상을 고찰한 것에 비해, 본고에서는 결텍스트에서 나타나는 북한 및 저자 반디에 대한 관점을 비교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성 외(2022)에서 고찰한 결텍스트는 앞표지 이미지, 제목, 본문 앞뒤에 포함된 주변텍스트, 신문 기사나 서평 등의 후텍스트이다. 본고에서는 앞표지 이미지, 뒤표지와 띠지, 본문 앞뒤에 포함된 주변텍스트, 신문 기사

3) 국내에서도 ‘6.25 전쟁’을 둘러싼 다양한 논란이 있다(김학준 2020).

나 서평 등의 후텍스트를 살펴볼 것이다. 따라서 본고는 뒤표지 홍보문구와 띠지를 추가로 고찰한다.

3. 분석 결과

『고밭』이 러시아와 중국에서 번역되지 않았다는 사실은 정치 이데올로기가 번역에 미치는 영향을 잘 보여준다. 두 국가 모두 『엄마를 부탁해』나 『채식주의자』와 같이 최근 세계 출판 시장에서 큰 성공을 거둔 한국의 문학을 자국어로 번역하였다(郭長譽[곽장예]와 유인박 2022; 부호 2021; 의사코바 2020; 한국문학번역원 디지털도서관). 또한 크게 흥행한 작품이 아니더라도 『고밭』과 유사한 시기에 출판된 도서들도 일부 번역된 바 있다. 특히 중국의 경우에는 2013~2017년 한국에서 총 4400여 종, 연평균 870여 종의 도서 저작권을 수입했는데 절대 다수가 아동도서나 대중적인 작품이다. 정치 이데올로기가 담긴 사회과학 서적은 소수에 불과하며 『마르크스가 내게 아프냐고 물었다』(류동민), 『상산학과 양명학』(김길락), 『한국의 유학사상-한국 유학의 특수성』(유사순) 등이 있다(徐來[쉬라이] 2019). 이 책들은 중국의 주류 이데올로기를 강화할 수 있는 책들로 볼 수 있다. 이에 반해 북한체제를 비판하는 『고밭』과 같은 책은 중국에 소개되지 않고 있다. 역사적으로 러시아와 중국은 국제 관계에서 북한의 후견국이 되기도 하는 극소수의 국가이다(엄구호 2018; 정시구 2020). 이에 따라 북한체제를 비판하는 작품을 공식적으로 수용할 수 없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일본어판과 관련해 연구자들은 일본어판의 출판사인 가자히노 문고(かざひの文庫)에 연락하여 일본어판에서 한국어 원문의 결텍스트 중 일부만을 신게 된 배경과 번역된 결텍스트가 원문과 매우 높은 일치도를 보이는 것에 대해 문의하였는데, 출판사에서는 대표 역자 하기와라 료(萩原遼) 씨에게 결텍스트의 선정을 포함하여 번역과 관련된 모든 결정을 일임하였다고 답하였다(2022년 5월 17일 이메일 수신). 그러나 하기와라 료 씨는 2017년에 고인이 되어(조갑제 2017) 연구자들이 연락을 취하지 못하였다. 연구자들은 또한 대만판의 출판사인 평안출판사에도 연락하여 출판 당시의 상황에 관하여 문의하였으나 구체적인 답변을 받지 못하였으며, 출판사를 통해 받은 연락처로 번역가에게 몇

차례 이메일을 보냈으나 역시 답변을 받지 못하였다. 따라서 아래 내용은 두 번 역서를 원문과 비교하여 살펴본 결과이며, 두 번역서에 대한 분석결과와 대조하기 위해 서구권 번역서들을 대상으로 성 외(2022)에서 분석한 결과를 일부 사용하였다.

3.1 앞표지 이미지

앞표지는 독자가 책을 직관적으로 인식하게 되는 첫 번째 문턱이다. 앞표지는 독자의 관심을 끌기 위한 마케팅의 대상으로 활용될 수 있기 때문에 책의 내용이 충실히 반영되지 않을 때도 있다(Lau and Varughese 2015: 2-5; Sonzogni 2011: 12-15). 한국어 원본에서는 제목이 중앙에 크게 보이고 상단에 갈색조로 겨울나무의 모습이 보인다. 오른쪽 하단에는 “북녘땅 50년을 말하는 기계”로 살아온 자신의 “의분”을 표출한 반디의 시가 적혀 있다.

〈그림 1〉 『고발』, 일본어판, 대만판의 앞표지 이미지4)



전체적으로 일본어판과 대만판의 앞표지 이미지는 이데올로기 전달에 주력한 것으로 보인다. 일본어판의 앞표지 이미지는 황폐하고 쓸쓸한 북한의 현실을 형상화한 듯한 한국어 원문의 이미지와 매우 유사하고 한국어 원문에 있는 저자의 시도 동일하게 실렸다. 한국어 원문에서는 책의 상단에 “북에서 온 소

4) 대만판의 제목은 한국어의 “고발(告發)”과 유사한 뜻으로 사용되는 “控訴(공소)”다. “告發”은 대만에서는 쓰지 않는 표현이다.

설”이라고 쓰인 문구에 비해 일본어판에서는 책 제목 옆에 “북한에 거주하는 작가가 목숨 걸고 쓴 김씨 왕조의 기만과 서민의 비애”라고 되어 있다. 대만판에서는 파랑과 빨강의 대조와 철조망을 손으로 움켜쥔 모습을 통해 한반도의 이념 대립, 북한 주민의 고통과 탈출의 의지를 보여준다. 대만판의 표지는 직관적인 일러스트만으로 반공의 이미지가 선명하게 드러나 원문 표지와 비교했을 때 정치 이데올로기가 더욱 강화되었다고 볼 수 있다.

한편 서구권의 번역서 중 프랑스어 번역서에서는 화장한 젊은 여성이 유니폼을 입고 독자를 응시하는 모습을 담았는데, 번역서의 기획과 출판에 참여한 임영희 번역사는 이러한 이미지의 선정에는 마케팅이 크게 작용하였다고 인터뷰에서 언급하였다(Sung et al. 2022: 87). 영어판은 북한 주민들이 웃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으며 이미지의 중간이 찢겨 있는데, 이 부분에 제목을 넣었다. “The Accusation: Forbidden Stories from Inside North Korea”라는 제목과 같이 영어의 앞표지는 금기된(forbidden) 북한의 내부를 은밀히 들여다보는 이미지이다(이지은 2018: 511-513). 프랑스어나 영어 번역서의 앞표지와 비교해 보면 일본과 대만의 번역서는 앞표지를 통해 한국어 원문의 정치 이데올로기를 보다 직접적으로 반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2〉 프랑스어판, 영어판의 앞표지 이미지



3.2 뒤표지와 띠지

뒤표지는 앞표지만큼 눈에 띄는 부분은 아니지만 여전히 독자가 책을 구매하기 전에 먼저 살펴보는 부분일 것이다. 뒤표지에는 흔히 책을 홍보하는 문구가 포함되어 책 내용 중 독자의 흥미를 단번에 끌 수 있는 부분이 발췌되기도 하고 책에 대한 호평을 인용하기도 한다(MasterClass 2021). 한국어 원본에서는 단편소설들 중 ‘복마전’의 일부가 발췌되어 있다. 일본어판의 뒤표지에는 아무 내용이 없다. 일본 문고판 뒤표지의 경우, 출판사별로 정해진 규격까지 갖추고 즐거리를 삽입해 작품 홍보의 일환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대부분(西浦[니시우라] 2020)인 점을 고려하면 일본어판 『고발』이 특징적이라 할 수 있다. 대만판 뒤표지는 원본 앞표지에 실린 반디의 시 중 일부⁵⁾를 상단에 배치하고 하단에는 북한체제를 비판하는 작품 내용과 『고발』 원고가 한국으로 건너오기까지의 험난한 과정을 설명한 주변 텍스트의 일부를 발췌하고 있다. 대만판 뒤표지에서는 해외 매체나 권위있는 인물의 호평을 인용하는 식의 홍보 문구는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이데올로기적 측면에서 북한체제를 비판하는 한국 출판사의 관점을 그대로 수용하고 있다.

띠지는 <그림 1>과 같이 일본어판과 대만판의 앞표지 이미지에서도 보이고 서구권에 비해 더 빈번히 사용되는 것으로 보여 살펴보고자 한다. 대만의 경우는 확인되지 않았지만 중국과 일본에서는 책 홍보에 띠지가 활발히 사용되는 경향이 있다(김정현과 서혜옥 2015: 127; 종소함과 이해원 2019: 374). 띠지는 책을 구매한 후 폐기하거나 분실할 수도 있으나 출판사 입장에서는 일종의 광고로서 협소한 공간에서 간결하고 짧은 문장으로 독자들에게 소구한다(엄지혜 2015).

일본어판의 띠지 앞면에는 언론인이자 우익 정치활동가인 사쿠라이 요시코(櫻井よしこ) 씨가 추천한다는 내용이, 띠지 뒷면에는 역자인 하기와라 료 씨가 쓴 글이 실려 있다. 뒤쪽 띠지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1950년대부터 북한은 내가 선망하는 나라였다. 1972년 ‘붉은 깃발’의 특파원으로 그 땅에

5) 잉크에 펜으로가 아니라, 피눈물에 빠로 적은 나의 이 글/ 사막처럼 메마르고 초원(草原)처럼 거칠어도 병인(病人)처럼 초라하고 석기(石器)처럼 미숙해도 독자여! 삼가 읽어다오.(반디의 시1 일부 발췌, 연구자 번역)

밭을 내디뎠을 때는 ‘제2의 조국’ 정도로 여겼다. 그런 마음이 무너져 내리기까지 3개월도 채 걸리지 않았다.”⁶⁾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대만판 띠지는 앞면에 “생명의 위협을 무릅쓰지 않았다면, 당신은 이 작품을 볼 수 없었다”, “지금까지도 북한에 살고 있는 반체제 작가가 피눈물로 쓴 작품! 위협을 무릅쓰고 남한에 밀반입되어 마침내 세상에 공개되었다!”와 같이 작품의 극적인 배경을 알림으로써 독자들의 관심을 불러일으키는 한편 교보문고, 영국 아마존북스의 ‘별 다섯 개’ 독자평가를 강조하고 있다. 띠지 뒷면에서도 『고밭』에 대한 찬사를 촘촘하게 소개하는데, 신경숙 작가의 평가, 영국, 미국, 캐나다, 프랑스, 이탈리아 등의 저널이나 인터넷 서점의 긍정적 평가를 나열하고 있다. 일본어판에서 해외의 호평에 대한 인용이 없는 것은 일본어판이 프랑스어판에 이어 두 번째로 번역됨으로써 책을 광고할 다양한 출처를 찾기 쉽지 않았을 것이라는 경위가 있다. 그러나 대만판은 그보다 더 늦은 2017년에 출판되었는데 이때는 이미 여러 국가에서 번역서가 발간된 이후이다.

요컨대 일본어판은 뒤표지가 없고 대만판에서는 책에 대한 홍보보다는 책의 내용에 집중하고 있다. 띠지에서는 두 버전 모두 어느 정도 홍보 내용을 포함하여 일본어는 정치활동가의 추천 내용을, 대만판에서는 여러 나라에서의 호평을 소개하고 있다. 한편 성 외(2022)에서는 서구권 언어들의 뒤표지는 논하고 있지 않다. 영어판의 뒤표지에서는 저자 반디의 소개와 함께 책의 내용을 간단히 기술하고, 유명 작가나 신문의 글을 발췌하여 소개한다. 특징적으로 그리스어 번역서에서는 “피눈물로 쓴”, “저자의 정체가 알려지면 목숨이 위태로워질 수 있다”, “지옥과 같은 곳에 살면서도” 등의 자극적인 내용이 있다. 뒤표지에 어떤 내용을 넣을지는 출판사의 마케팅의 일환일 수 있으며, 또한 해당 문화의 전반적인 관행의 영향도 있을 것이다. 이런 논의는 본 논문의 범위 밖이므로 여기서 상세하게 논하지 않는다.

6) 연구자 번역. 원문은 아래와 같다. 1950年代から北朝鮮は私のは憧れの国だった。1972年に「赤旗」の特派員としてかの地に足を踏み入れた時は“第二の祖国”くらいの思いだった。それがくずれるのは3か月とかからなかった。

3.3 작품을 둘러싼 주변텍스트⁷⁾

전술한 바와 같이 『고발』은 많은 주변텍스트를 포함하고 있다. 아래 표는 이를 나타내는데 첫 번째 시는 앞표지 이미지에 있는 “말하는 기계로” 살아가는 고통에 대한 내용이다. 두 번째 시는 조갑제의 ‘해설’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공산주의를 비판하는 내용이다. ‘추천사’는 반디의 원고가 반출되도록 도운 피랍탈북인권연대의 도희윤 대표가 반디를 소개하고 책의 반출 과정을 간략히 적은 것이다. ‘비화’에서는 월간조선의 김성동 기자가 원고가 넘어온 과정을 상세히 기록하였다. 세 편의 ‘독후기’는 원고를 읽은 후의 소감을 적은 글이고, ‘토착어·북한말 소사전’은 북한에서 쓰는 표현을 설명한 것이다.

〈표 1〉 본문을 둘러싼 주변텍스트

한국어 원문	일본어판	대만판
		『고발』에 대한 해외의 찬사
시 1	√	√
시 2		√
추천사(도희윤)	√	√
비화(김성동)		√
해설(조갑제)	√	√
독후기 1(이지영)		√
독후기 2(김청술)		√
독후기 3(김광진)		√
토착어·북한말 소사전		
	역자 후기	

일본어판과 대만판의 결텍스트 구성은 서구권 언어의 구성(Sung et al. 2022)과 상당한 차이를 보인다. 우선 일본어판에 실린 조갑제의 해설은 성 외(2022)에서 고찰한 서구 번역서 중 어느 것에도 포함되어 있지 않다. 다만 서구의 번역서들은 모두 원문의 조갑제의 해설 내에 있는 시(‘시 2’)를 별도로 소개하고 있다. 서구권 언어들에서는 주로 도희윤의 추천사와 김성동의 비화를 번역하였다. 또한 서구 번역서 중에는 역자 후기/서문이 없고, 대만판처럼 토착어·

7) 책의 제목, 앞표지, 뒤표지 등을 제외하고 본문 앞뒤에 있는 주변텍스트를 말하며 바첼러(Batchelor 2018: 26)에서는 이를 *prefatorial material*이라고 지칭한다.

북한말 소사전을 제외한 모든 결텍스트를 빠짐없이 번역한 경우 역시 없었다.

일본어판을 조금 더 상세히 보면, 첫 번째 시, 도희운 추천사, 조감제의 해설을 포함하고 있다. 첫 번째 시(시 1)는 언급한 바와 같이 한국어 원문의 앞표지에 나온 것으로 표현의 자유를 억압받으며 살아가는 고통을 쓴 것이다. 일본어판에서도 앞표지에 이 시를 실었다. 도희운의 추천사는 원문의 내용에 대한 첨가나 삭제 및 변경이 거의 없이 반영되어 있다. 조감제의 해설은 한국어본과 동일하지 않고 일본어판을 위해서 조감제 대표가 별도로 써서 전달한 것이다. 한국어 원본의 조감제 해설은 18페이지에 달하는 분량으로 『고발』에 수록된 단편 7편 각각에 대해 각 단편에서 글귀를 인용하며 북한체제를 다각도로 조망하면서 비판하고 있다. 한편, 일본어판에 실린 조감제의 해설은 2페이지 반 분량으로 내용이 축소되었으며 각 단편의 개별 내용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고발』이 일본뿐 아니라 세계 출판계와 계약을 맺음으로써 곧 출간된다는 소식을 글머리에서 전하며 마지막 부분에서도 영국에서의 출판권을 획득한 출판사 대표가 『고발』에 대해 평가한 내용을 직접 인용하며 끝맺고 있어 해설로서의 초점의 차이를 보인다. 일본어판은 따라서 여기에서 『고발』이 일본뿐 아니라 해외 여러 언어로 번역되고 있다는 홍보 내용을 담고 있다. 이러한 조감제 해설에 이어 역자인 하기와라 료 씨의 후기를 수록하고 있다.⁸⁾ 역자 후기에서는 역자가 이전에 일본 공산당지인 ‘붉은 깃발(赤旗)’의 특파원으로 평양에서 지낸 경험을 언급하며 북한에 있는 그의 친구를 찾아다니다 어떻게 되거 명령을 받게 되었는지도 기술한다. 그 외에도 드디어 북한 사회에서도 ‘내부고발자’가 나오게 된 것을 다행으로 여긴다며 북한의 실상을 일본 독자들에게 알리는 것이 자신의 소명이라고 역설한다. 역자는 단편소설 7편에 대해 자신이 평양에서 특파원 생활을 하면서 겪은 바 ‘납득이 가는 작품들’(萩原[하기와라] 2016: 258)이라며 사실 기반의 소설임을 강조한다. 또 북한 사회의 ‘성분’을 둘러싼 계급차별에 대해 언급하며 북한이 사회주의를 표방함으로써 계급 없는 사회를 강조하지만 실상은 조선노동당과 국가보위부 중심의 특권층과 이들의 정점에 군림하는 김일성 일가 대 인민을 대비시켜 51개 단계로 세분화한 계급 구조임을 통렬하게

8) 일본에서는 흔히 역자 후기를 통해서 번역가들이 자신의 의견을 개진하는 편이다 (Bilodeau 2013).

비판한다(萩原[하기와라] 2016: 259-261).

대만판은 한국어 원문의 결텍스트 중에서 토착어·북한말 소사전을 제외하고는 모두 포함하였다. 토착어·북한말 소사전은 북한어 중 생소한 표현이나 문화소에 대해 한국어 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이므로 대만판에서는 필요하지 않았을 것이다. 대만판의 결텍스트 내용을 한국어 원문과 비교해 보면 일본어판과 마찬가지로 원문에 대한 첨가나 삭제가 거의 없이 매우 충실하게 번역되어 있다. 한편 대만판에서는 책의 앞쪽에 여러 면(3-11페이지)을 할애하여 『고발』에 대한 해외의 긍정적 평가를 소개한다. 대만판은 2016년에 출판된 일본어판보다 1년 이상 늦게 출간되어 그동안 해외 여러 지역에서 소개된 이 책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를 실어서 책을 홍보하고 있다.

일본어판과 대만판은 결텍스트의 구성에 차이가 있으나, 내용 면에서 한국어 원문과 비교하여 첨가·삭제·변경이 거의 없다. 일본어판에만 있는 역사 후기에서도 북한체제에 대한 비판이 강하게 나타난다는 점에서 한국어 텍스트의 반복한 이데올로기를 충실히 전달하는 입장으로 볼 수 있다. 대만판은 원문에 있는 모든 주변텍스트를 번역한 점이 특징적이다. 이는 대만 출판사가 작품에 관한 한국의 관점을 전적으로 수용하고 있다는 근거가 될 수 있지만 대만 출판사 측의 직접적인 관점을 확인할 수 있는 별도의 주변텍스트가 없다. 근거가 희박하다고도 볼 수 있다. 그러나 3.1절에서 분석한 바와 같이 대만의 경우 앞표지 이미지를 통해 한국이나 일본보다 더 명확한 반공 이데올로기를 보여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제 각 번역서의 주변텍스트에서 이데올로기가 특히 드러나는 부분을 어떻게 번역했는지 사례를 통해 살펴보기로 한다. 위에서 언급했듯이 정치 이데올로기와 관련된 표현이 성 외(2022)에서 논의한 서구의 번역서들 대비 어떻게 번역되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우선 도희운의 추천사 말미에는 <예 1>과 같이 ‘통일’, ‘공산주의 종말’, ‘술제니친’과 같이 정치적 색채가 짙은 표현이 있다. 일본어판과 대만판에서는 이 어휘들을 모두 포함한다. 영어판에서는 이들 표현이 삭제되어 있고 영어판을 매개어로 번역한 브라질어판과 스웨덴어판에서도 모두 삭제되어 있다.⁹⁾ 영

9) 스웨덴어판은 전체적으로 프랑스어판을 매개어로 사용하였으나, 이 예가 포함된 추천

어판에서는 한국어 원문의 밑줄 친 부분만 번역되었다.

<예 1>

한국어판: 『수용소군도』를 쓴 소련의 저항작가 **솔제니친**이 자신의 작품을 빼돌려 서방에서 출간되게 했던 그 모습대로, **북한의 저항작가인 반디의 ‘고밭’은 이제, 아름다운 반딧불이가 되어 북한에 드리운 어둠을 밝히려 세상에 나가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반디는 자기가 쓰고 싶은 글을 마음껏 쓸 날이 올까, 자유를 누릴 날이 올까, **통일**의 날을 손꼽아 기다리면서 **공산주의 종말**을 향해 필봉을 높이 들고 글을 써 나갈 것입니다. (9) (밑줄과 볼드체는 연구자들이 첨가한 것임. 이하 다른 예시들에도 적용됨.)

일본어판: 『収容所群島』を書いたソ連の抵抗作家**ソルジェニーツイン**が、…バンジは、… **統一**の日を指折り数えながら、**共産主義の終末**に向け筆鋒を高く書き続けることでしょう。(5)

(『수용소 군도』를 쓴 소련의 저항작가 **솔제니친**이, ... 반디는 **통일**의 날을 손꼽으며, **공산주의의 종말**을 향해서 필봉을 높이 들고 쓸 것입니다.)

대만판: 如同撰寫《古拉格群島》的蘇聯異議作家潘迪**索忍尼辛**，... 引頸期盼著**統一**的那一天，等待著**共產主義的末日**，提起筆桿繼續寫下去。(15)

(‘수용소 군도’를 쓴 소련의 반체제 작가 **솔제니친**처럼 ... **통일**의 그 날을 고대하고 **공산주의의 말일**을 기다리며 펜대를 들고 계속 글을 쓰고 있다.)

영어판: And now *The Accusation* is now going out into the world to illuminate the darkness which shrouds North Korea, just like a beautiful firefly, the pen name this writer chose for himself. (245)

<예 2> 역시 도희윤의 추천사에서 발췌한 것이다. 일본어판과 대만판에서는 “자유와 희망의 땅 대한민국”이 삭제된 부분 없이 번역되었다. 프랑스어 번역서에서는 “자유와 희망의 땅”이라는 표현을 삭제하였다. 그러나 프랑스어를

사는 영어판을 기반으로 번역하였음을 책에서 명시하고 있다. 예문 중 <예 4>를 제외한 <예 1>, <예 2>, <예 3>은 성 외(2022)에서 발췌된 것이다.

매개본으로 번역한 유럽 포르투갈어, 그리스어, 스웨덴어 번역서에서는 이 표현이 삭제되지 않았다.¹⁰⁾

<예 2>

한국어판: 물건을 받아든 청년은 곧장 집 밖으로 나갔고, 반디가 소장하고 있었던 그 원고는 지금 자유와 희망의 땅 대한민국에 와 있습니다. (2)

일본어판: 原稿を受け取った青年は直ちに家を出て、パンジの原稿は今、自由と希望の地・大韓民国にあります。 (5)

(원고를 받은 청년은 즉시 집을 나와 반디의 원고는 지금 자유와 희망의 땅 대한민국에 있습니다.)

대만판: 拿到稿子的青年隨即走出屋外，而潘迪一直以來小心珍藏的手稿如今已安然送抵自由與希望之地大韓民國。 (15)

(원고를 받은 청년은 곧바로 집밖으로 나왔고, 반디가 조심스럽게 간직했던 원고는 이제 자유와 희망의 땅 대한민국에 무사히 도착했습니다.)

프랑스어판: Le jeune homme repart aussitôt et les manuscrits conservés par Bandi pendant si longtemps se retrouvent en Corée du Sud. (8)

(... 반디가 그렇게 오랜 기간 가지고 있던 원고는 이제 한국에 와 있습니다.)

<예 3>은 김성동의 비화에서 ‘6.25 남침 전쟁’을 번역한 부분이다. 대만판에서는 한국어 원문을 그대로 번역하였고 일본어판은 김성동의 비화를 번역하지 않았다. 한편 영어 번역서에서는 남북한에서 지칭하는 어휘를 모두 설명하며 양측 간에 균형을 유지하려는 시도가 나타난다. 영어 번역서에서는 그러나 “남침”을 번역하지 않았다. 영어를 기반으로 번역한 브라질 포르투갈어판에서도 영어 번역서와 동일하게 번역하였다.

<예 3>

한국어판: 반디는 유년시절 6.25 남침 전쟁을 겪었다. (281)

10) 앞서 언급한 것처럼 스웨덴어판은 영어판을 기반으로 번역하였으므로 이 표현을 삭제하지 않은 영어판을 그대로 번역했을 수 있다.

대만판: 潘迪在幼年時期經歷過六二五南侵戰爭。(249)
(반디는 유년시기에 6월 25일 남침 전쟁을 겪었습니다.)

영어판: He was a child when the Korean War broke out, the war which South Korea refers to by the date of its beginning, 6.25, and which the North has dubbed the “Fatherland Liberation War.” (232)

다음 예시는 김성동의 비화의 제목이 번역된 것이다. 서구권의 번역서들은 ‘북한현역작가의 북한체제 비판 소설은 이렇게 넘어왔다’라는 한국어 제목 중 ‘북한현역작가의 북한체제 비판’이라는 표현을 삭제하거나 다르게 표현하였다. 대만판은 여기에서도 원문에 충실하게 번역하였다.¹¹⁾

<예 4>

한국어판: ‘북한현역작가의 북한체제 비판 소설은 이렇게 넘어왔다’ (278)

대만판: 北韓現役作家之北韓體制批判小說, 是這樣傳到南韓的 (246)

(북한 현역 작가의 북한 체제 비판 소설은 이렇게 남한에 전해졌다.)

그리스어판: Φώσφητασε στα χέρια μας το χειρόγραφο του Μπαντι (240)

(반디의 원고는 우리에게 어떻게 도달했는가?)

유럽 포르투갈어판: Como o manuscrito de Bandi chegou até nós (221)

(반디의 원고는 우리에게 어떻게 왔는가?)

스웨덴어판: Efteror (252)

(후기)

영어판: Afterword: How *The Accusation* came out of North Korea (229)

(The Accusation은 어떻게 북한에서 나왔는가?)

브라질 포르투갈어판: Como A acusação saiu da Coreia do Norte (213)

(The Accusation은 어떻게 북한에서 나왔는가?)

위 예시들에서 드러나듯이 서구의 번역서들 중 일부는 ‘통일’, ‘공산주의 종말’, ‘솔제니친’, ‘북한현역작가의 북한체제 비판’과 같이 정치 색채가 강한 표현은 삭제하거나 우회하고 있으며, 원문에서 대한민국을 수식한 “자유와 희망

11) 프랑스어 번역서에서는 김성동의 비화는 번역되지 않았다.

의 땅”을 삭제하기도 했으며, ‘6.25 전쟁’과 같은 표현 역시 남과 북에서 표현이 다른 경우는 특별히 소개하기도 하였다. 이에 비해 일본과 대만판은 원문의 표현을 모두 그대로 전달하고 있다. 대만판은 ‘남침’과 같은 표현도 충실하게 전달하고 있다. 일본어판은 김성동의 비화를 포함하고 있지 않으나 도희운의 추천사를 번역한 내용에서는 원문의 정치 이데올로기가 첨가·삭제·변경이 거의 없이 전달되어 있다. 일본어판은 또한 띠지에 있는 ‘북한에 있는 사람이 북의 독재를 고발한 최초의 책’(「北の人が北の独裁を告発した最初の本」)이라는 문구에서 김성동 텍스트의 제목과 유사한 내용을 담고 있다. 이처럼 일본어판과 대만판은 앞서 서구 번역서들의 결텍스트에서 나타난 세 가지 현상 중 정치 이데올로기의 표현과 남북한을 바라보는 관점의 두 가지에서 서구 언어의 번역서들과 뚜렷한 차이를 보인다. 저자 반디의 진위에 대한 논란은 후텍스트를 통해 살펴볼 수 있다.

3.4 후텍스트

성 외(2022: 94-95)에서는 일부 서구권 번역서들의 후텍스트에서 두드러지는 사례로 저자 반디의 진위에 대한 논란을 언급하고 있다. 『고발』이 처음 번역된 프랑스에서 좌파 지식인을 중심으로 신문 서평 등을 통해 반디의 진위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었고, 이는 프랑스어 번역서를 매개본으로 번역한 스웨덴어 번역서에서도 반영되어 ‘출판사 노트’를 통해 출판사가 작가의 진위에 대한 조사를 광범위하게 실시했음을 밝히고 있다. 이는 이 논문에서 살펴본 서구의 번역서들이 『고발』에 대해 어느 정도 거리를 두고 바라보고 있음을 뜻한다. 이데올로기가 드러난 표현들이 완화되어 나타난 점, 남한과 북한에 대해 중립적으로 바라보려는 시도 역시 원문의 이데올로기를 전적으로 수용하지는 않음을 뜻한다. 그러나 일본어판과 대만판의 후텍스트에서는 반디의 진위에 대한 논란이 발견되지 않았다.

본고는 후텍스트 고찰을 위해 일본과 대만에서의 『고발』과 관련된 신문 기사, 서평, 저널 비평 등을 찾아보았다. 일본어판이 출간되자 산케이신문(2016/8/26, 2017/1/7)은 두 차례에 걸쳐 『고발』의 출간 소식을 전하며 김씨 정권하에서 부조리한 삶을 살아가는 민중의 실상을 청년, 노인, 아이 엄마 등 다

양한 주체의 관점에서 저술했다(有元[아리모토] 2016)고 평하고, 역자인 하기와라 료 씨에 대해서는 ‘북한이라는 사악한 나라와 투쟁한 저널리스트’(有元[아리모토] 2017)로 칭했다. 일본어판의 후텍스트에서는 번역가에 대한 내용이 상당 부분을 차지했다. 일본어 번역가 하기와라 료 씨는 전직 기자 출신으로 1970년대에 일본의 공산당지인 ‘붉은 깃발’의 평양 특파원으로 활동하기도 하였는데 당시 평양에서의 취재나 그 후의 경험을 통해서 북한체제에 대해 강한 의구심을 가지게 되었고, 이후 많은 북한 관련 저서를 출판하였다. 2007년에는 ‘북송자의 생명과 인권을 지키는 모임’인 ‘빛을 쬐라’(『光射せ!』)를 창간하여 약 14년간 발행하였다. 2014년에는 ‘납치와 진실(부제: 북한의 군사독재체제=조총련과 싸우는 정보지)’(北朝鮮の軍事独裁体制=朝鮮総連と闘う情報誌 『拉致と眞実』)이라는 저널도 창간하여 활동하였다(山田[야마다] 2020). 일본문학진흥회가 수여하는 5대 문학상¹²⁾ 중 하나인 오야 소이치 논픽션상(제30회)을 수상하기도 하였다. 그는 자신의 활동에 대해 “김정일 정권과 어떤 타협도 하지 않고 끝까지 싸워, 일본인 납치피해자 또는 사기에 의해 북송된 재일조선인, 일본인 처의 생활을 촉구하는 운동을 전 세계에 알리고 싶다”는 포부를 밝혔다(萩原[하기와라] 2005).

일본의 신문 기사나 서평에서는 반디의 진위에 대한 의구심은 발견할 수 없었다. 이것은 역자의 반복한 활동을 조명한 기사가 주를 이루어 대체로 『고밭』의 출간을 반기는 방향이라는 것과 맥을 같이 한다. 앞표지의 ‘북한에 거주하는 작가가 목숨 걸고 쓴 김씨 왕조의 기만과 서민의 비애’라는 문구 역시 저자와 그의 이야기에 대해 의심이 없음을 보여준다.

대만의 후텍스트에서도 저자에 대한 의구심이 발견되지 않았다. 대만에서는 한국어 원문에 포함되어 있는 결텍스트를 기사로 활용하고 있는 경우도 있었으며 상대적으로 후텍스트가 많지 않았다. 『고밭』에 실린 단편 가운데 하나인 「지척만리」와 이지영 기자의 ‘독후기’가 번역된 글이 아닌 마치 처음부터 대만에서 창작된 글인 것처럼 대만의 한 뉴스포털에 소개되고 있다(潘迪[반디] 2017; 李知映[이지영] 2017). 김성동의 비화도 한 인터넷신문사에 기사처럼 게재되어

12) 아쿠타가와 상(芥川賞), 나오키 상(直木賞), 기쿠치 히로시 상(菊池寛賞), 마쓰모토 세이초 상(松本清張賞), 오야 소이치 논픽션 상(大宅壮一ノンフィクション賞)

있으며(金成東[김성동] 2017), 한 대만 일간지의 기자가 쓴 기사(許文貞[쉬원진] 2017) 역시 『고발』의 주변텍스트들을 종합하여 쓴 기사로서 새로운 내용이나 관점은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 한편, 대만의 르포 작가 아포(阿潑)는 북한의 폐쇄성과는 비교가 안될 정도로 상당히 많은 수의 북한 관련 출판물이 대만에 소개되어 있다고 말한다(阿潑[아포] 2021). 아포가 소개한 일련의 도서 중에는 탈북작가 이현서의 『擁有七個名字的女孩』(7개의 이름을 가진 소녀), 프랑스 기자 장 룩 코아탈렘(Jean-Luc Coatalem)의 북한취재기 『平壤冷麵』(*Nouilles froides Pyongyang*), 독일 희곡작가 크리스티안 아이제르트(Christian Eisert)의 북한체류기 『我們最偉大』(*Kim und Struppi*) 등 한국에 출판되지 않은 책이 다수 있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봤을 때, 북한에 대한 대만의 관심이 상당하다고 판단할 수 있다. 다만, 대만은 중국이라는 더 직접적인 위협을 대면하고 있기 때문에 북한에 대한 직접적인 비판은 하지 않는 편이다. 그러나 대만 역시 반공 국가의 일원으로서 한국, 일본과 유사한 입장에서 중국과 북한에 비판적일 수밖에 없고 그 관점이 번역에도 반영되어 있다.

4. 논의 및 결론

본고는 북한 작가 반디의 『고발』에 대한 한반도 주변국의 번역서를 분석 대상으로 일부 서구권 번역서들의 결텍스트와 비교함으로써 정치 이데올로기가 번역서에 어떻게 반영되었는지 살펴보았다. 러시아와 중국에서는 이 책이 번역되지 않았으므로 번역이 이루어진 일본어판과 대만판을 중심으로 고찰을 진행하였다. 두 번역서의 결텍스트에서는 일부 유럽과 아메리카 대륙의 번역서들과 달리 원문의 정치 이데올로기를 그대로 전달하였다. 이는 한국, 일본, 대만은 반공이 공통의 관심사(정태현 2013)이며, 미국을 중심으로 하는 허브-스포크(hub-and-spokes) 동맹체제하에서 북한의 위협에 공동으로 대응하고 있다는 것(Izumikawa 2020)과 맥을 같이 한다. 요컨대 서구의 번역서들에 비해 일본과 대만의 번역서에서는 북한의 위협에 대해 관찰자가 아닌 당사자의 관점이 보인다.

일본어판은 북한을 강력히 규탄하는 번역가의 입장이 역자 후기와 신문 기사들에 나타나며, 미디어 검색 결과 반디의 정체성에 대한 논란도 발견되지 않

았다. 한국어 원문 중 일본어판에 포함된 결텍스트에서도 원문의 표현을 완화하지 않고 그대로 표현하였다. 대만판은 앞표지 이미지를 통해 북한에 대한 비판적 관점의 책이라는 사실을 직관적으로 보여주고 있으며, 원문의 결텍스트 중 도착어·북한말 소사전을 제외하고는 모두를 번역하였고, 결텍스트의 내용을 원문과 일일이 비교한 결과 원문을 충실하게 번역하여 정치 이데올로기가 나타난 표현을 삭제하거나 완화하지 않았다. 한편, 대만판에 대한 후텍스트는 일본의 경우보다 적어 대만에서는 이 책에 대한 관심이 더 낮아 보인다. 대만은 중국과 대립하고 있기 때문에 북한에 대한 직접적인 관심이 상대적으로 적은 것으로 보이나 반공국가의 일원으로 한국이나 일본과 유사한 입장에서 북한체제에 비판적일 수밖에 없고 그 관점이 번역서에도 반영되고 있다.

중국과 러시아어 번역서의 부재는 사피로(Sapiro 2016)가 언급한 책이 국경을 넘는 데에 관여하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4가지 요소 중 정치 이데올로기가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 것이다. 또한 작품이 국경을 넘어 번역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원문의 맥락에서 벗어나 수용 문화의 맥락에서 새로운 해석의 공간에 놓이고, 이에 따라 결텍스트 등을 통한 조정의 과정을 거치는데(Sapiro 2016: 90), 일본과 대만판은 『고발』의 이데올로기에 대해 한국어 원문과 같은 입장에서 해석하였고, 일부 서구권에서는 다른 관점을 드러내기도 하기도 하였다. 정치 이데올로기는 따라서 도서가 국경을 넘을 수 있을지 여부를 결정하는 주요 요인일 뿐 아니라, 국경을 넘은 후에도 결텍스트 상의 구체적인 결정에도 중요한 영향을 끼친다.

본고는 결텍스트에 초점을 두면서 본문의 번역은 고찰대상에 포함시키지 않았고, 『고발』의 번역서들 중 일부만을 비교하였다는 한계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고는 정치 이데올로기가 번역서의 유무는 물론 결텍스트에도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다수의 번역서를 비교·고찰함으로써 폭넓게 보여주었다는 데에 의의가 있다. 선행연구에서도 결텍스트와 이데올로기를 결합한 연구는 있으나 하나의 ST를 중심으로 다수의 TT를 대조하여 다양한 사회문화 맥락에서의 수용을 연구한 경우는 찾기 어렵다. 『고발』은 정치 색채가 짙고, 결텍스트가 풍부하며, 다수의 번역서가 존재한다는 점에서 연구 가치가 높은 텍스트이다. 다수의 국가 또는 문화권에서 번역을 매개로 원본을 수용하는 다양한 양상의 스펙트럼을 관찰할 수 있기 때문이다.

참고문헌

- 郭長譽[곽장예], 유인박 (2022) 「生態翻譯學視域下『채식주의자』漢譯研究」
[생태번역학을 통해 본 『채식주의자』 중국어 번역 연구], 『한중인문학연구』 74: 255-273.
- 金成東[김성동] (2017.6.7.) 「他用《金日成選集》把批判北韓體制的小說?度到南韓」 [그는 『김일성선집』을 이용해서 북한체제를 비판하는 소설을 남한에 밀반입했다], 『民報』[민보], 2022년 4월 15일 검색, <https://www.peopledmedia.tw/news/b3771962-f1e7-4956-8d2b-fd1a46311724>.
- 김정현, 서혜옥 (2015) 「국내 북 커버 디자인에서 떠지의 선호도 및 실증연구」, 『한국디자인문화학회지』 21(4): 125-136.
- 김학준 (2020.6.6.) 「[김학준의 6·25재조명①] 내전이었나 국제전이었나」, 『신동아』, 2022년 6월 25일 검색, <https://shindonga.donga.com/3/all/13/2083162/1>.
- 西浦考次[니시우라 코지] (2020.5.20.) 「文庫本とはどんな種類の本? 「単行本」との違い、発売される時期・タイミングなどを整理しました」[문고본이란 어떤 종류의 책인가? ‘단행본’과의 차이, 발매되는 시기·타이밍 등을 정리했습니다], 『出版TIMES』[출판 타임즈], 2022년 9월 6일 검색, <https://kagiroi.com/publishing-times/9086/>.
- 潘迪[반디] (2017.6.10.) 「在我出生長大的土地上, 回家探望母親錯了?—《控訴》所揭露的北韓真相」 내가 나고 자란 땅에서 어머니를 만나러 고향으로 가는 것도 잘못된가?—『고발』이 폭로하는 북한의 진상, 『the news lens 關鍵評論』[더 뉴스렌즈 관건평론] 2002년 4월 17일 검색, <https://www.thenewslens.com/article/69564>.
- 부호 (2021) 「한국어 ‘V+(-으)’에 대한 중국어 대응 표현 연구」, 『어문론집』 86: 7-34.
- 徐來[쉬라이] (2019.4.23.) 「중국 시장서 관심 모으는 한국 도서」, 『中國』 중국, 2022년 5월 2일 검색, http://www.chinacorea.com/krsdbd/201904/t20190423_800165596.html.
- 許文貞[쉬원진] (2017.6.16.) 「北韓作家化名《控訴》偷渡南韓」[북한작가가 이름을 바꾸고 『고발』을 남한에 밀반입], 『中國時報』[중국시보] 2022년 4월

15일 검색, <https://www.chinatimes.com/newspapers/20170616000762-260115?chdtv>.

有元隆志[아리모토 다카시] (2016.8.21.) 「北の民衆の実相赤裸々に」[북한 민중의 실상 적나라하게] 『産経新聞』[산케이신문], 2022년 6월 24일 검색, <https://www.sankei.com/article/20160821-KURJWK23UNL45JSUT2XSPGOXFE/2/>.

有元隆志[아리모토 다카시] (2018.1.7.) 「北朝鮮という邪悪の国と戦ったジャーナリストの死…全力でその遺志を継ぐ」[북한이라는 사악한 나라와 투쟁한 저널리스트의 죽음… 전력을 다해 그 유지를 잇는다] 『産経新聞』[산케이신문], 2022년 6월 24일 검색, <https://www.sankei.com/article/20180107-UK4PLPOO5NJLPKDRQO43JQBUKA/>.

阿漣[아포] (2021.2.1.) 「北韓主題創作必定遇上的「困局」：這算真實還是虛構？—讀懸疑小說《北方的光明星》」[북한테마 창작에서 마주쳐야 하는 딜레마: 닐픽션인가 픽션인가?—미스터리 소설 《Star of the North》], 『OKAPI閱讀生活誌』[오카피 열독생활지], 2022년 5월 2일 검색, okapi.books.com.tw/article/14276.

山田文明[야마다 후미아키] (2020.2.18.) 「金民柱さん、萩原遼さん。お二人の追悼号を発行するに当たって」 [김민주 씨, 하기와라 료 씨, 두 분의 추도호 발간을 맞이하여], 『光射せ!』[빛을 쏘라!], 2022년 4월 7일 검색, <https://ameblo.jp/sakamoto-syouzou/entry-12659441031.html>.

엄구호 (2018) 「러시아의 한반도 정책과 북핵 해결 협력 방향」, 『중소연구』 41(4): 163-188.

엄지혜 (2015.8.21.) 「책 띠지, 당신은 버리십니까? 모으십니까? 띠지를 바라보는 출판인들의 생각」, 『채널 예스』, 2022년 4월 27일 검색, <http://ch.yes24.com/article/view/28931>.

의사코바 아이누라 (2020) 「엄마를 부탁해 러시아어 중역 연구」, 석사학위논문, 한국외국어대학교 대학원 영어번역학과.

李知映[이지영] (2017.6.10.) 「世上最封閉最殘酷之地：北韓作家對金氏極權獨裁提出的《控訴》」[세상에서 가장 잔혹한 땅: 김씨 정권의 강권독재에 대한 『고발』] 『the news lens 關鍵評論』[더 뉴스렌즈 관건평론], 2022년

- 4월 10일 검색, <https://www.thenewslens.com/article/69595>.
- 이지은 (2018) 「유동하는 텍스트(fluid text)와 북한 재현 양상 - 반디의 『고발』과 데보라 스미스(Deborah Smith)의 번역 *The Accusation*을 중심으로」, 『춘원연구학보』 13: 497-532.
- 정시구 (2020) 「북한의 ‘후견·피후견 국가관계’ 역사로 본 남북통일 고찰」, 『한국행정사학지』 48: 99-128.
- 정태현 (2013) 「역사인식과 연구대상의 ‘공백’(한국-대만-일본 관계사) 규명을 통한 동북아 국제관계사 인식 지평의 확대」, 『아세아연구』 56(3): 1-11.
- 조갑제 (2017.12.27.) 「北 3代와 싸운 ‘고독한 사무라이’의 죽음」, 『NewDaily』, 2022년 4월 4일 검색, <https://www.newdaily.co.kr/site/data/html/2017/12/27/2017122700018.html>.
- 중소함, 이혜원 (2019) 「중국 북 커버 띠지 디자인의 선호도 분석에 관한 융합 연구-중국인을 대상으로」, 『한국과학예술융합학회』 37(5): 371-386.
- 萩原遼[하기와라 료] (2009.9.14.) 「威鏡道弁を学んできます」[함경도 사투리를 배워오겠습니다], 『民団新聞』[민단신문], 2022년 4월 7일 검색, <https://www.mindan.org/old/front/newsDetailc527.html>.
- 한국문학번역원 디지털 도서관. 2022년 7월 15일 검색, https://library.ltikorea.or.kr/dSearch?_csrf=539975a5-5f36-43eb-9b21-3b0c486ac295&searchCategory=&search_word=%EC%97%84%EB%A7%88%EB%A5%BC+%EB%B6%80%ED%83%81%ED%95%B4.
- Batchelor, Kathryn (2018) *Translation and Paratexts*, London: Routledge.
- Batchelor, Kathryn (2020) ‘Paratexts’, in Mona Baker and Gabriela Saldanha (eds) *Routledge Encyclopedia of Translation Studies*, third edition, London and New York: Routledge, 401-404.
- Birke, Dorothee and Birte Christ (2013) ‘Paratext and Digitized Narrative: Mapping the Field’, *Narrative* 21(1): 65-87.
- Bilodeau, Isabelle (2013) ‘Discursive Visibility: Quantifying the Practice of Translator Commentary in Contemporary Japanese Publishing’, *Selected Papers of the CETRA Research Seminar in Translation Studies* 10: 1-25. Available at <https://www.arts.kuleuven.be/cetra/papers/files/bilodeau>.

- Genette, Gérard (1987/1997) *Paratexts: Thresholds of Interpretation* (Translated by Jane E. Lewin),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Harvey, Keith (2003) “‘Events’ and ‘Horizons’ Reading Ideology in the ‘Bindings’ of Translations”, in Maria Calzada-Perez (ed.) *Apropos of Ideology*, London and New York: Routledge, 43-70.
- Izumikawa, Yasuhiro (2020) ‘Network Connections and the Emergence of the Hub-and-spokes Alliance System in East Asia’, *International Security* 45(2): 7-50.
- Kung, Szu-Wen Cindy (2009) ‘Translation Agents and Networks, With Reference to the Translation of Contemporary Taiwanese Novels’, *Translation Research Projects* 2: 123-138.
- Lau, Lisa and E. Dawson Varughese (2015) *Indian Writing in English and Issues of Visual Representation: Judging More Than a Book by Its Cover*, London: Palgrave Macmillan.
- Lefevere, André (1992) *Translation, Rewriting, and the Manipulation of Literary Fame*, London and New York: Routledge.
- Li, Long, Xi Li and Jun Miao, Jun (2019) ‘A Translated Volume and Its Many Covers - A Multimodal Analysis of the Influence of Ideology’, *Social Semiotics* 29(2): 261-278.
- MasterClass (2021) ‘How to Write a Catchy Back-Cover Blurb That Sells’, *MasterClass*, September 3, 2021. Available at <https://www.masterclass.com/articles/how-to-write-a-back-cover-blurb-that-sells>.
- Munday, Jeremy (2016) *Introducing Translation Studies: Theories and Applications*, fourth edition, London and New York: Routledge.
- Sapiro, Gisèle (2016) ‘How Do Literary Works Cross Borders (or Not)? A Sociological Approach to World Literature’, *Journal of World Literature* 1(1): 81-96.
- Sonzogni, Marco (2011) *Re-Covered Rose. A Case Study in Book Cover Design as Intersemiotic Translation*, Amsterdam: John Benjamins.
- Spirk, Jaroslav (2014) *Censorship, Indirect Translations and Non-translation:*

The (Fateful) Adventures of Czech Literature in 20th-century Portugal,
Newcastle: Cambridge Scholars Publishing.

Summers, Caroline (2017) *Examining Text and Authorship in Translation*,
London: Palgrave Macmillan.

Sung, Seung-eun, Soyoung Park, Jai-Ung Hong, Yoo-jung Kim, and Hyejin
Kim (2022) 'From Translation Studies to Korean Studies through a
Paratextual Analysis of North Korean Writer Bandi's *Kobal*', *Acta
Koreana* 25(1): 81-104.

Thomson-Wohlgemuth, Gaby (2009) *Translation under State Control: Books for
Young People in the German Democratic Republic*, New York and
London: Routledge.

Torres-Simón, Esther (2021) 'Evolution of Images of Korea in the Paratexts to
Korean Literature in English Translation', *Transletters: International
Journal of Translation and Interpreting* 5: 251-272.

Watts, Richard (2005) *Packaging Post/Coloniality: The Manufacture of Literary
Identity in the Francophone World*, Lanham: Lexington Books.

<분석 대상 도서>

반디 (2014) 『고발』, 서울: 조갑제닷컴.

萩原遼[하기와라 료] (2016) 『告発』 [고발], 東京[도쿄]: かざひの文庫[가자히노
문고] (원전: 반디 (2014) 『고발』, 서울: 조갑제닷컴).

劉雪英[류설영] (2017) 『控訴』 [공소], 臺北[타이페이]: 平安文化 (원전: 반디
(2014) 『고발』, 서울: 조갑제닷컴).

[Abstract]

Translating North Korean Writer Bandi's *Kobal* in Countries Surrounding the Korean Peninsula

Seung-eun Sung, Bo-kyong Kim & So-young Choi
(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Kobal has drawn attention as a novel by a writer who is known to live in North Korea, and has been translated in 28 countries to date. *Kobal* offers an attractive example to examine paratextual transformations in its translations; it has multiple paratextual elements to choose from in translation, particularly in terms of its political ideology; and it has been translated into many languages. According to a previous study of the text's paratextual transformations, in some translations in the West, anti-North Korea ideology was mitigated; a neutral view between South and North Korea was attempted; and Bandi's identity was questioned. These versions seem to be translated from the perspective of an outside observer of the situation in North Korea. On the other hand, translations in countries surrounding the Korean Peninsula, directly subject to North Korea's threat of war, may take a different view. Against this background, this study demonstrates how political ideology is reflected in the paratexts of *Kobal*'s translations in countries surrounding the Korean Peninsula vis-a-vis some translations in the West as discussed in the previous study. While there are no Chinese or Russian translations, paratexts of Japanese and Taiwanese translations have fully conveyed the source text ideology. The analysis supports the claim that political ideology is a major factor in translation, from determining whether to translate the text to transforming paratextual elements. This paper thus demonstrates a spectrum of ideological reception, through paratexts, in multiple translations with different socio-cultural backgrounds.

Keywords: literary translation, ideology, paratexts, epitexts, peritexts, prefatorial material

주제어: 문학번역, 이데올로기, 겉텍스트, 후텍스트, 주변텍스트, 작품을 둘러싼 주변텍스트

성승은 (제1저자)

한국외국어대학교 융합인재대학 부교수

michsung@hufs.ac.kr

관심분야: 번역과 이데올로기, 중역, 아동문학번역

김보경 (공동저자)

한국외국어대학교 KFL학부 강사

liuda@naver.com

관심분야: 번역과 이데올로기, 특수목적번역, 고문번역

최소영 (교신저자)

한국외국어대학교 KFL대학원 조교수

choisy@hufs.ac.kr

관심분야: 번역과 이데올로기, 번역어의 성립, 화계의 번역

논문투고: 2022년 8월 3일

1차심사 완료: 2022년 8월 26일

2차심사 완료: 2022년 9월 9일

게재 확정: 2022년 9월 19일